

현대차그룹, ‘전기차 생산 인프라’ 속도… 글로벌 톱3 목표

2030년까지 총31종 라인업 갖춰
기술·시설 고도화에 총24兆 투자
전기차 부품 서플라이 체인 강화
美 조지아주 공장, 연간 30만대 양산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동화 시대 ‘퍼스트 무버’로서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 공급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이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현대차·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본격화 한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및 전용 라인 전환 등을 통한 생산 능력 제고는 국가 전략기술인 전기차 분야 R&D·제조 핵심 역량까지 강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9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과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고도화에 적극



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가운데)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장재훈 사장(오른쪽) 등 관계자들과 함께 선적부두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울산공장 1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과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부지 등을 둘러본 뒤 ‘전기차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현대차그룹 및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으로 올해 4분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신공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자동화, 친환경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미래차를 양산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기아 화성 오토랜드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초로 신설하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약 3만평의 부지에 1조 원 가량이 투입된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 연간 최대 15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유연생산, 저탄소, 지능화, 인간 친화를 추구하는

혁신 공장으로 국내 미래차 생산의 대표적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오토랜드 광명도 상반기 중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또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글로벌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로 확대해 이중 60%인 92만대를 수출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까지 늘려 2030년 전기차 글로벌 판매 톱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함께 국내 전기차 부품 서플라이 체인 강화에 노력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한다.

전동화 가속화 등 자동차 산업 변혁기를 맞아 최근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된 전기차 부품 기업들과 면밀히 협력해 내연기관 분야에서 국내 부품 기업들이 확보한 글로벌 리더십을 전동화 분야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

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기차는 저장(Storage) 기능을 활용한 V2L, V2G 등 전력 수요 창출, 커넥티드, 자율주행과 접목한 다양한 신서비스와 산업 창출과도 직결된다.

이처럼 테슬라 등을 비롯해 글로벌 전기차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동화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전기차 공장 건설 및 유치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지원도 필요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회사가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 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짓고 있다. 애초 2025년 내 완공해 2026년 양산 본격화 계획을 2024년 내 완공해 2025년 양산 본격화로 1년 앞당겼다. 이 곳은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에쓰오일, 새 수장과 ‘에너지 전환’ 준비 박차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 선임
‘샤힌 프로젝트’ 3兆 경제효과 기대
27년 동안 다양한 분야 경험 쌓아

국내 4대 정유사 중의 하나인 에쓰오일이 신임 CEO를 바꾸고 샤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갈 전망이다.

9일 에쓰오일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이사 CEO에 안와르 알 히즈아지(Anwar A. Al-Hejazi) 씨를 선임했다.

에쓰오일 이사회는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에너지 회사 아람코의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에너지 업계의 전문가로 회사의 경영과 글로벌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플라스틱·합성수지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회사 측은 프로젝트 가동 이후에는 3조원가량의 경제 효과가 날 것



안와르 알 히즈아지(Anwar A. Al-Hejazi) 에쓰오일 신임 CEO. /에쓰오일

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알 히즈아지 신임 대표는 2016년부터 아람코 아시아 재팬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8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아람코 아시아 사장으로서 한국·중국·일본의 기업들과 전략적 합작 투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인물이다. 실무 면에서도 킹과 드석유광물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199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가스 생산 시설 관리, 사업 개발, 투자 현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아울러 에쓰오일이 공략하고 있는 저탄소 암모니아와 수소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향후 에쓰오일의 행

보에도 신임 CEO의 역할이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알 히즈아지 신임 대표는 사우디 아람코와 한국·일본의 10개 주요 업체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과 연관된 여러 사업에도 참여했다.

에쓰오일은 CEO를 교체해 통해 다시기 ‘변화’의 동력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4년 동안 에쓰오일을 이끈 후세인 알 카타니의 역량과 성과를 기반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종합 석유화학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는 큰 ‘도전’이다. 유가에 좌우되는 정유 사업 비중을 줄이며 유동성이 심한 유가 동향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에쓰오일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인 동시에 아람코의 한국 내 투자 중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아람코는 자회사인 아람코 오버시즈 컴퍼니(AOC, Aramco Overseas Company B.V.)를 통해 에쓰오일의 지분 63.4%를 보유하고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 이미지.

/삼성전자

‘갤럭시’ 불규칙 심장 박동 잡아낸다

갤럭시 워치5·4 시리즈 확대 적용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 앱의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 Irregular Heart Rhythm Notification)’ 기능이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하반

기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탑재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5와 워치4 시리즈’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불규칙한 심장 리듬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감지된다. 실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갤럭시 워치가 사용자의 불규칙 심장 박동을 연속적으로 감지하면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해 ‘심방세동’ 가능성이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워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안내한다.

/허정운 기자

대한항공, 기내서 와이파이 ‘팡팡’ 터져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외 여행을 앞두고 비행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오는 6

월 1일부터 보잉 737-8 항공기가 운항하는 국제선 노선을 시작으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한 보

잉 737-8기종은 김포~오사카,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 등 단거리 노선에 우선 투입 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에어버스 A321neo, 보잉 787 등 다양한 기종으로 확대, 순차적으로 국제선 전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65종 선보

LG전자 김치냉장고가 활용도를 대폭 높였다. LG전자는 11일부터 LG 디오스 김치톡톡 신제품을 순차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탠드식 53종과 두껍식 12종 등 65종이다.

신제품은 491리터 용량 스탠드식 신제품에 ‘다목적 보관 모드’를 처음 적용했다. 잎채소와 복숭아 등 11가지 식재료 및 식품을 맞춤 보관할 수 있다.

LG전자는 김치냉장고 사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야채와 과일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모드를 개발하게 됐다. 20대에서 30대 직원으로 운영 중인 사내 커뮤니티 ‘엠지트’에서도 김치냉장고에 바라는 추가 기능을 조사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재용 기자 juk@